

#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에 관한 에스노그라피

조지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청소년들의 존재와 삶은 각 시대와 사회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 사모아 섬에서의 현지 연구를 통해 소녀들의 성장 과정을 관찰한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Mead, 1928)는 미국 청소년들이 겪는 사춘기가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인 청소년기의 특징이 아닐 수 있음을 말해 주었다. 당시 미드의 연구는 각 사회의 문화와 교육의 영향에 따라 청소년기는 서로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상이함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2000년대 부터 대중적인 촛불집회와 함께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청소년은 정치적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정책과 학교제도를 비판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오늘날 어떠한 시선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2008년 광화문 촛불집회에 등장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은 소위 “촛불소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기대하는 “모범적인 학생”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학교제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에 반대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주목받고 있다.<sup>1)</sup> 한 예로, 스웨덴의 10대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툼베리(Greta Thunberg)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각국의 환경 공약을 비판한 연설로 큰 주목을 받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스웨덴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일인 시위를 하던 툼베리의 활동은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1) Kennelly, J. (2011)의 연구저서 『*Citizen Youth: Culture, Activism, and Agency in a Neoliberal Era*』는 최근 서구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청소년 행동주의(youth activism)”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Kennelly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화, 전쟁, 빈곤,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캐나다 청소년 활동가들에 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시기는 연구자가 1차로 한국의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다.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청소년기후행동(Youth 4 Climate Action)”이라는 청소년 환경 활동가 모임이 결성되어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속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context)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 1.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

연구자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활동은 기성 사회의 학교교육과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의해 그 실천이 꾸준히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 살펴 볼 사회 현상 중 하나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청소년 인권 활동은 청소년 당사자들을 ‘정치적 주체’로 표명하면서 자발적인 청소년 모임을 조직하여 실천 행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생의 두발 자유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거리시위를 시작으로, 정부의 교육 및 입시 정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및 퍼포먼스, 2020년에 얻어낸 만 18세 참정권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실천 행위는 점차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인권 활동’이라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면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인권 활동은 ‘청소년’이라는 존재와 정체성에 대한 세대 이해를 토대로, 청소년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인권’에 대한 독특한 감수성과 담론, 그리고 ‘활동’이라는 일종의 정치적 실천으로 표현되는 청소년들의 집단적 행위의 의미에 대한 종합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해지평 위에서 청소년-인권-활동이 연결되는 지점을 탐구할 때,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가 갖는 의미는 보다 맥락성 있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우리 사회에서 약 20년 사이에 부각된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청소년들의 고유성과 독립성, 정치성을 주장하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현장연구(fieldwork)’를 수행하였다. 청소년들의 실천 행위는 학교 및 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점에서, 교육학 영역에서도 주의 깊게 탐구할 필요가 있는 사회 현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청소년 인권 활동’을 통해 표현되는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가 청소년들의 존재와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탐구를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갔다.

첫째, 활동가들의 삶에서 청소년 인권 활동이라는 실천 행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둘째, 활동가들은 청소년 인권 활동이라는 실천 행위를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의미화하였는

가?

셋째, 활동가들에게 ‘행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그들의 실천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육학적 함의는 무엇인가?

## 2. 연구의 수행 과정

### (1) 연구 방법: 에스노그래피 방법론(Ethnographic Methods)

본 연구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와 그 의미를 청소년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활동가들의 생애의 맥락에 기초하여 조명하고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종단적 접근을 활용한 에스노그래피 방법론(The Longitudinal Ethnographic Methods)을 활용하여, 청소년 인권 활동에 대한 현장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 현지자료 수집을 중심으로 하는 에스노그래피 방법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1-2차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모임에서 1차 현장연구를 수행하면서 학교제도에 저항하는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청소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에서 ‘학교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며, 모임에 대한 참여관찰과 현지자료 수집을 병행하면서 청소년 참여자들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로부터 약 12년이 흐른 2020년에, 연구자는 보다 폭넓은 시간성 속에서 청소년들의 존재와 행위를 이해하고자 활동가들의 모임에 다시 방문하여 2차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인권 활동을 매개로 이뤄진 청소년들의 실천 행위를 활동가들의 생애를 바탕으로 재조명하였다. 이는 단편적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행위들을 그들의 생애와 삶의 맥락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보다 긴 시간성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의 실천 행위를 탐구하는 작업이었다. 2차 현장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과거의 연구 참여자 중 30대 청년기인 현재까지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두 명의 참여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가들의 생애에 초점을 둔 참여관찰과 면담, 현지자료 수집을 병행하면서, 청소년 인권 활동을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되었던 활동가들의 삶과 실천 행위를 조명하였다.

### (2) 연구 현장 및 연구 참여자

연구 현장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청소년 모임들이 연합하여 청소년들의 실천 행위를 만들어가는 모임이다. “구심 없이 각자 알아서 하는 뿔뿔이 운동”의 한계를 공유하고, 청소년 인권 활동을 보다 조직적으로 형성하려는 필요성에 기반하여 2006년부터 청소년 모임의 활동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생 청소년, 비학생 청소년, 여성 청소년, 노동하는 청소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정체성과 지향을 가진 청소년 활동가들은 교육 및 사회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다소 유동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인권에 대한 목소리와 실천을 만들어가고 있다.

연구자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차 연구에서 만났던 활동가들 중,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약 10년 이상 청소년 인권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두 명의 활동가(남성 1명, 여성 1명)의 생애를 중심으로 2차 현장연구를 수행하였다. 남성 참여자 “오승희”(가명, 현재 30대 중반)는 고등학생 때부터 청소년 인권 활동을 시작했으며, 연구자가 1차 연구를 수행할 당시 네트워크에서 ‘학교팀’을 담당하는 대학생 활동가였다. 참여자는 이후 명문대학교를 자퇴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청소년 교육 및 인권에 관한 저술 및 출판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의 실천을 병행하고 있다. 참여자 오승희는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모임에서 청소년 세대들에게 활동의 자원을 나눠주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여성 참여자 “토끼풀”(가명, 현재 30대 초반)은 연구자가 1차 연구를 수행할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탈학교 청소년으로서 인권 활동에 참여하였다. “학력 없는 사회”를 위한 대학 입시 거부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는 청소년 및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모임에서 상근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참여자 토끼풀은 여성으로서 청소년 인권 활동에 참여하며 타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해 온 과정과 고민을 진솔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수행한 2차 현장연구는 참여자들의 생애에 초점을 둔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활동가들의 모임에서 발행한 책자나 신문, 사진기록 등의 현지자료 수집과 활동가들의 생활에 대한 참여관찰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1-2차 현장 연구를 토대로, 참여자들의 실천 행위가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진 그들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어떻게 의미화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I. 실천 행위의 구성과 의미화 과정

## 1. 개인적 차원 및 집단적 차원의 저항 행위

### (1) 개인적 차원의 저항 행위: 학교 제도와의 갈등과 부딪힘

참여자 ‘오승희’와 ‘토끼풀’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학교의 규제에 대해 일종의 불만스러운 감정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학교에 “너무 열 받아서”<sup>2)</sup> 교사들과 잦은 “감정적인 부딪힘”을 체험했던 참여자들에게 학교는 견고한 제도적 힘으로 체험되기도 하였다. 참여자 오승희는 청소년기에 학교 안에서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교사들과 갈등하고 “좌충우돌”하는 부딪힘의 시간을 지나왔다. 때로는 “교사를 들이받는” 감정적인 “충동”들 속에서, 참여자는 교사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만들어내기로 유명했다.

청소년들이 인권 활동을 접하게 되는 계기나 통로는 다양한 편이다. 인터넷 모임이나 오프라인 토론회 및 교육 활동, 집회 등에 우연한 계기로 참여하거나 먼저 활동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청소년 모임에 참여하기도 한다. 참여자 토끼풀은 중학교 때 어머니의 소개로 교육공동체의 인문학 특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인문학 특강을 통해 새롭게 사유하는 법을 접했던 토끼풀은 2007년 4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학생인권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이 집회에서 토끼풀은 마치 “번개를 맞은 것 같이” 자신이 속한 세상이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일종의 사고의 균열과 전환을 체험하였다.

미드(Mead, 1935)는 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의 유형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적(혹은 문화적) 이탈자”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개인을 인위적으로 표준화하는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구성원들에 대한 평균성과 확실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지배적인 중심 문화에 대한 저항감을 갖는 소수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참여자들이 학교제도를 통해 체험한 감정적인 부딪힘은 “학생다움”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사회나 문화의 길들임이 청소년기 참여자들의 내부의 욕망이나 생각과 충돌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하는 참여자들 대부분이 겪는 부딪힘과 충돌의 체험은 주로 학교나 제도 등으로 표현되는 견고한 사회구조와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개인을 규제하고 있는 사회나 문화의 길들임이 개인 내부의 욕망이나 생각과 충돌할 때, 개인의 행위성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즉흥적인 양상으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적인 충동이나 체험들이 단지 개인 안에 머물지 않고 도리어 활동의 자원이 되어 타인들과의 사회적

---

2) 면담을 통해 참여자 표현한 어휘는 이와 같이 “큰따옴표” 안에 표기하여 인용하였다.

공감지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인권 활동이라는 집단적 실천 행위가 구성되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 (2) 집단적 차원의 저항 행위: ‘광장’으로 나온 청소년들

2008년, 광화문 광장에는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촛불소녀”로 불리며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던 이들은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에 반대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학교제도를 통해 유지되는 대학입시중심의 경쟁교육이었다. 두발 및 복장 단속과 같은 신체의 문제에서부터 강제야간학습과 같은 시간의 문제, 그리고 집회 참여를 제한하는 정치적 문제까지,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학생다움”의 기준은 청소년들의 존재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참여자 오승희와 토끼풀을 포함한 청소년 활동가들은 청소년 인권 행동을 위한 촛불집회를 함께 준비했다. 촛불집회에는 토끼풀과 같이 대학입시중심의 학교교육과 정책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가면을 쓴 채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모이기 시작했다. 촛불집회는 그동안 산발적 형태 혹은 소극적 방식으로 이뤄졌던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저항 행동들을 정부의 학교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청소년의 집단적인 목소리와 실천 행위로 조직하여 구성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촛불집회에 더 오랜 기간 깊이 참여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토끼풀에게도 광장은 “온 몸으로” 청소년 인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해 주었던 체험이었다. 그들은 공권력과의 대치 상황에서 강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단지 “집에 가고 싶어 울부짖는 여고생”으로 기사화되는 사회적 시선을 접하게 되었다. 청소년의 정치성을 왜곡하는 기성 사회의 편견과 여성 청소년이 갖는 이중의 억압을 체험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실천 행위는 기성 체제의 모순에 몸소 부딪히는 과정에서 구성되었다. 심지어 ‘광장’이라는 정치적 공간에서조차 ‘학교와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이미지로 재현되는 현실을 체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실천 행위가 왜곡되어 재생산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었다. 청소년 활동가들은 힘과 시선들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광장 안에서 정치적인 행위란 무엇인지 체험하였으며, 이는 이후 청년기 활동가들의 삶과 선택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복잡한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그들의 정치성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실천 행위로서 청소년 인권 활동을 의미화하게 되었다.

## 2. 탈주의 흐름들: 저항과 거부를 통한 행위하기

### (1) 게릴라식 저항 행위: “스쿨어택(School Attack)”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졌던 청소년들의 저항 행위들이 청소년 인권 활동이라는 집단적인 실천 행위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탐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자는 활동 초기에 학교 내에서 홀로 또는 소수의 친구들과 함께 실험적인 형태의 저항 행위들을 만들어갔으며, 이는 주로 조직적이지 않은 즉흥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를 보였다.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학내 인권 모임 가이드에서 “학교 신경을 긁고 싶으면 점심시간에 (유인물을) 높은 층에서 꼭 뿌리고 도망친다거나, 아침에 뿌릴 때 교무실 앞에 몇 장 붙인다거나 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즉흥성과 산발성,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의 저항 행위들은 후에 참여자들이 활동했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모임에서 “스쿨어택(School Attack)”이라는 게릴라식 저항 행위로 발전하였다.<sup>3)</sup>

“스쿨어택”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학내 학생들의 제보를 받으면 학교의 인권 실태를 파악한 후 “두발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의 “두발자유”를 요구하는 행위 방식이었다. 이때,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종이비행기를 교실과 옥상에서 날리며, 학교제도를 계획적으로 기습하는 행동 방식을 구상했다. 이러한 게릴라식 저항 행위들은 견고하게 짜인 학교의 시간과 공간, 관계와 활동의 틀을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 순간적으로 흐트러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쿨어택” 이후 학생들에 대한 교사와 학교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학생부장 교사의 훈화가 방송되는 일도 잦았다.

“여러분들 대학생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비판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지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의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정의감과 의구심은 장기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학생답지 않은 행동, 사고방식, 여러분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 학생부장 교사의 학내 방송 중에서 발췌)

3) 청소년 활동가들은 학교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불시에 습격하는 “순대촌 (사업장 어택)”과 같은 활동을 기획하기도 하였다. 청소년들을 저렴한 인력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에 들어가 ‘위장 아르바이트’를 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후 언론 기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사업장에 항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참여자들은 대학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들의 비판이나 저항 행동들이 학교 안에서 수용될 수 없음을 자주 체험하였다. 또한 그들의 “비판의식”은 대학 진학 이후로 유예되어야 할 “학생답지 않은 행동과 사고방식”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학교와 가정, 사회의 다양한 장면에서 기성 제도와와의 부딪힘을 체험하며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만들어갔던 참여자들은 사회구조의 모순과 청소년의 존재가 갖는 주변적 정체성이 맞물려있음을 발견하였다. 참여자들은 기존의 사회구조와 활동가들의 실천 사이에 놓인 충돌 지점에서, 청소년 인권 활동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기르며 실천 행위의 의미들을 찾아갔다.

## (2) 거부를 통한 안티적 행위: “우리는 학교와 대학을 거부한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있지만, 청년기까지 인권 활동을 지속하는 활동가들 중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자퇴하고 상근 활동가의 길로 전환한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이들이 ‘탈학교’를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들은 서로 다르지만, 학교제도로 대표되는 기성 제도에 대한 비판과 ‘탈주’라는 의미에서는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청소년 활동가들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 의식과 정치적 참여라는 실천 행위들과 결합되고 있다.

참여자 토끼풀이 탈학교를 하게 된 결정적인 상황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교사와의 갈등 때문이었다.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수업 중이 치자마자 전화를 끊었던 토끼풀은 교사에게 이 장면이 포착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토끼풀은 여러 번 교사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부탁했지만 교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교칙을 크게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토끼풀은 “솔직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왜 다니냐?”는 교사의 책망을 받았다. “저는 그 교칙 같이 만든 적이 없는데요?”라고 교사에게 되받아치며 처음으로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 토끼풀은 그녀의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원래는 대안학교 입학에 준비했지만 지원했던 고등학교에 떨어지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토끼풀은 과거 “명문 고등학교”의 명성을 누리던 지금의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입학식 첫날부터 시행된 야간학습과 이후에도 반복되었던 잦은 교사의 체벌과 별점제 등은 토끼풀이 자퇴를 결심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토끼풀은 고심 끝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탈학교를 했다.

탈학교, 대학입시거부운동,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로 기성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거부”의



형태로 이뤄졌던 참여자들의 실천 행위들은 “나다운” 모습과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참여자 토끼풀의 경우는 탈학교 이후에도 왕복 네 시간씩 해금 연주를 배우러 다니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조바심을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 또한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토끼풀은 입시를 위한 해금 레슨을 멈추고 상근 활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다. 한편, 참여자 오승희는 명문대에 입학하였지만, 대학 생활보다 청소년 인권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휴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밑에서부터 조직하고 행동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치적 행위들을 기획하고자 했다. 때마침 대학입시거부운동을 만들어가던 청소년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는 대학을 자퇴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택하였다. 그는 이러한 어려운 선택들을 그의 삶에서 “제일 자연스러운 결정이었고 나다운 결정이었다”고 의미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기가 되었을 때 “비진학”을 선택한 여러 활동가들은 “이 운동으로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자본주의적 경쟁구도의 맞물림 속에서, 탈학교를 결심한 활동가들이 청년기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는 고학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업, 특히 고소득의 직업군을 선택할 기회를 차단한다(이경숙, 2017). 그리고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은 학교의 테두리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직업군에 배분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자본의 결핍 상황에 놓이게 한다. 상근 활동가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사실상 힘겨운 재정 상태나 사무실을 자주 옮겨야 하는 일들로 인해, 활동가들은 청소년 인권 활동을 그만두고 “생업을 위해” 다른 일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물질 토대의 불안정성은 실천 행위로서의 청소년 인권 활동과 청년기의 직업으로서 인권 활동을 활동가들의 삶에 의미 있게 연결하는 데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민을 안겨주고 있었다. 실제로 오승희와 토끼풀과 같이 청년기가 된 이후에도 10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매우 드문 형편이었다. “인생을 대책 없이 사는 사람만 남았어요”하며 웃음을 짓는 오승희는 그들의 실천 행위가 “이별에 익숙해져야 하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실천 행위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제도 속에 편입되지 않은 그들의 독특한 실천 행위에 어떻게 안정적인 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 3. 생성의 실험들: 청소년의 목소리로 대안적 실천 행위 만들기

참여자들은 탈학교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곧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자퇴했던 참여자들은 다른 활동가들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청소년 후보 기호 0번 청소년 운동”을 구상하여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퍼포먼스를 기획했다.

“그 전까지는 교육감 후보가 뭔지, 투표를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없었어요.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선거를 하는 건지 찾아봤죠. 출마 선언문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마 선언문도 쓰고 나름대로 선거운동본부라는 것도 만들었죠. 그때 주경복 후보가 광장을 잘 활용했어요. 촛불 집회에 시민들이 많았으니까. 우리도 어깨띠 같은 것을 둘러매고 정말 후보처럼 그런 곳에서 유세하러 다녔어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후보자 벽보 옆에다 붙이고요. 벌금 폭탄이 두려워서 소심하게 옆에 붙인 거죠. (웃음)”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에 실린 참여자 토끼풀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발췌)

학교의 테두리 밖으로 나온 활동가들은 참신한 생각들로 기성 제도를 비트는 퍼포먼스를 자주 기획했다. 즉흥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로 이뤄졌던 활동가들의 저항 행동들은 점차 조직적이고 대안적인 실천 활동을 기획하는 것으로 발전해갔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기성 제도의 틈새 안에 넣고자 하는 다양한 실천 행위들은 이후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청소년 교육감 후보 운동, 학생인권조례제정 운동, 청소년 선거권 운동과 같은 집단적 차원의 실천 활동들은 주변적으로 흩어져있던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존재”로서의 또 다른 주체성을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제도를 거부하던 이들의 저항 행위는 제도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이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하였다.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행위한다’는 것은 기성 사회의 길들여진 시선을 해체하고 탈주하는 일임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실천들을 만들어가는 생성적 의미를 함께 가진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 청소년 인권 활동은 언제나 제도의 경계에서, 즉 제도에 편입되지 않으면서도 제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긴장과 갈등이 연속되는 힘겨운 싸움이었다. 실제적인 법 제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활동가들은 탈진과 갈등을 체험하며 인권 활동을 떠나기도 하였고, “청소년 운동에서 전혀 지향하지 않는 멘트”를 써야하는 딜레마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세계로의 참여 과정에서 기존의 획일성에 다시 편입되거나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행위의 창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긴장 구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은 대안적 실천 행위의 중요한 지점이었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대안적인 실천 행위는 기존의 학교제도 및 사회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실험적이고 정치적인 의미화 방식이기도 하다. 실천 행위가 조직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충돌 지점과 변수들을 인식하는 감수성을 갖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행위한다’는 것이 기성 제도로부터의 탈주이자 동시에 대안적인 실천의 생성 활동임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활동가들은 기성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이 단편화되고 왜곡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자체 언론을 인터넷 상에 만들어 언론에서 청소년을 재현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 그리고 학력중심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들은 학교제도의 안과 밖에서 삭제되거나 가려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독립성과 정치성을 보다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는 기성 제도 속에서 재현되고 재생산되는 이미지나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를 통해, 오히려 규정되지 않은 ‘복수적 정체성’(Deleuze & Guattari, 1980)을 가진 자신들의 존재를 자각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행위한다’는 것은 사회구조 속에 놓인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는 정치적인 과정임과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실험하는 생성의 활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 III. 실천 행위에 담긴 교육학적 함의

본 연구는 ‘청소년 인권 활동’으로 표현되는 청소년들의 개인적·집단적 실천 행위가 어떠한 교육학적 함의를 갖는지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앞에서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청소년 인권 활동가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두 참여자 오승희와 토끼풀의 생애를 통해, 그들의 실천 행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전개하면서, 청소년 인권 활동이라는 실천 행위의 구성 및 의미화 과정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안에서의 충돌, 제도 밖으로의 탈주,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전개된 참여자들의 실천 행위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체험한 제도와의 충돌과 갈등 지점을 통해, 제도화된 근대적 학교의 배치가 개인의 미시적인 삶 구석구석에 얼마나 깊숙이 체화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서덕희, 2008). 학교나 시험이라는 제도권 밖으로 나아와 대안적인 교육적 실천들을 실험하게 될 때, 그동안 우리의 존재와 삶이 근대적 학교의 틀에 맞게 ‘육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변형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Bourdieu, 1979). 따라서 근대적 시간과 공간, 관계와 활동의 배치를 바꾸어나가는 것은 학교의 틀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적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학교제도로

대표되는 근대적 배치와 교육이라는 활동이 결합되는 지점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게 된다. 참여자들의 실천 행위를 통해, 교육 활동이 갖는 사유와 해체의 힘, 자기표현과 자아의 재구성 과정,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성을 조명할 수 있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는 청소년들을 제도에 일방적으로 속박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나름의 ‘행위자성’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서 다시 이해하도록 한다. 산업화 및 지식 사회의 인력 양성과 국가적 필요에 의해 주도되었던 학교교육은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주체화의 지대를 제공해주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한계는 청소년의 존재와 교육이라는 활동이 갖는 역동성과 생성의 측면을 간과하고, 양자를 다소 정태적인 성격으로 결합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주체화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학습자 내부의 욕망은 학교라는 제도적 틀을 넘어서 또 다른 형태의 학습과 교육에 대한 탈주의 욕망을 추동하기도 한다 (Deleuze, 1986; 이진경, 2002). 특히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제도로부터 탈주하며 만들어 가는 실천 행위들은 학교교육에 의해 억압된 수동적인 존재로 조명되었던 청소년들을 세계와 자신과 타자에 대해 사유하고 행위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정치적 존재’로서 다시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Arendt, 1958).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은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을 다각도에서 성찰하고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사유나 실천을 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학교의 제도 밖에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험해보면서, 거부를 통한 탈주의 흐름뿐만 아니라 대안적인 생성의 흐름을 만들어갔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의 실천 행위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행위자 내부의 욕망을 자각하고 제도로부터의 탈주와 대안적 생성의 흐름을 함께 만드는 변혁적 교육의 행위로서 의미를 가진다.

## VI. 결론 및 제언

최근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존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청소년 행동주의(youth activism)”의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로 번져가면서, ‘정치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도 전개되고 있는 “청소년 행동주의(youth activism)”에 대한 비교·대조적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 활동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촉발되고 구성되었는지 비교한다면,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활동이 갖는 특수성

과 보편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기간을 고려하여 참여자를 추가한다면, 청소년 인권 활동에 대한 활동가들의 서로 다른 실천의 전유와 이해 방식을 분석하는 데 보다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 분석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와 관계적 행위망을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연구자는 청소년 인권 활동에 대한 중단적 접근의 에스노그래피를 기반으로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존재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그동안 주변화되고 소외되었던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만들어 온 실천 행위의 역사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불어 본 연구는 역사적 형성으로서의 학교교육과 이를 뒷받침해 온 청소년 교육이론과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해체의 작업을 하는 데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청소년센터 등 주로 정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교육에 대한 정책들은 “글로벌 인재와 시민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질적인 이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존재를 현장을 기반으로 귀납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제도와 청소년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성 제도 안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청소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전개되는 청소년의 존재와 삶의 한 측면을 드러낸다. 이는 그동안 “이탈 청소년”으로 낙인되어 청소년 교육 담론의 주변부로 밀려난 청소년의 실천 행위들을 교육의 관점으로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덕희 (2008). 『홈스쿨링을 만나다』. 서울: 민들레.  
 이경숙 (2017). 『시험국민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이진경 (2002). 『노마디즘 1, 2』. 서울: 휴머니스트.  
 조용환 (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조용환 (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용숙 · 이수정 · 정진웅 · 한경구 · 황익주 (2012).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일조각.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역 (2017).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Bourdieu, (1979). *La Distinction*. 최종철 역 (2005). 『구별짓기 (상)』. 서울: 새물결.  
 Deleuze, G. (1953~1995). *L'île déserte et autres texts. Textes et entretiens 1953~1974 &*

- Deux régimes de fous. Texts et entretiens 1975~1995.* 박정태 역 (2007).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서울: 이학사.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 nie 2.* Les Édition De Minuit.. 김재인 역 (2001).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 Deleuze, G. (1986). *Foucault.* Minuit. 권영숙 · 조형근 역 (1995). 『푸코』. 서울: 새길 아카데미.
- Kennelly, J. (2011). *Citizen Youth: Culture, Activism, and Agency in a Neoliberal Er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ead, M. (1928). *Coming of Age in Samoa.* Dell Publishing Company.
- Mead, M. (1935). *Sex and Temperament in Three Primitive Societies.* 조혜정 역 (1996). 『세 부족사회에서의 성과 기질』.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Weiler, K. (1988). *Women Teaching for Change: Gender, Class & Power.* Bergin & Garvey Publishers. 오재림 역 (1995). 『변화를 향한 비판적 교육: 학교교육 내 성, 계급, 권력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접근』. 서울: 여성사.